

한국 · 방글라데시 수교 40주년: 경제협력 현황과 과제

조충제 신흥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부연구위원 (cjcho@kiep.go.kr, Tel: 3460-1025)

최윤정 신흥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yjchoi@kiep.go.kr, Tel: 3460-1039)

송영철 신흥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ycsong@kiep.go.kr, Tel: 3460-1067)

차 례 ●●●

1. 경제협력 환경의 변화
2. 부문별 경제협력 현황
3. 경제협력 방향과 과제

주요 내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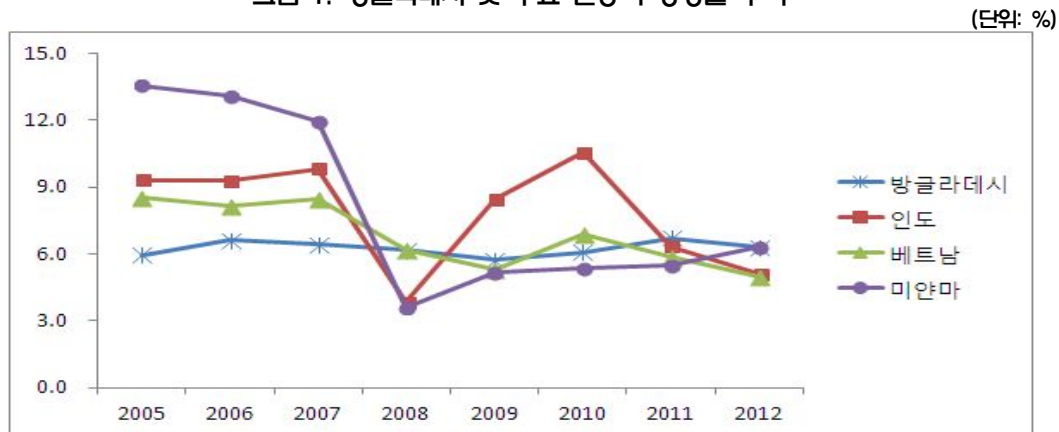
- ▶ 최빈개도국(LDC) 중 최대 국가인 방글라데시는 최근 5년간 6%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으며 한국의 중점개발협력 파트너이자 최빈국 최대 교역 파트너임.
 - 골드먼 삭스는 방글라데시를 브릭스를 잇는 차세대 신흥국인 넥스트11(Next-11)로, 도이치뱅크는 신흥국 중에서도 성장잠재력이 큰 프런티어마켓(Frontier Market)으로 평가함.
 - 방글라데시는 세계 8위의 인구대국이며 앙골라와 함께 최빈국 중 GDP 규모가 1,000억 달러를 넘는 나라로 한국의 대최빈국 1위 교역국가이며, 대개도국 2위의 개발원조(ODA)대상국가임.
- ▶ 1980년대부터 시작된 양국의 교역과 투자는 제1의 성장기와 조정기를 거쳐 2008년 이후 제2의 성장기에 진입해 있으며, ODA도 유상원조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음.
 - 교역과 투자는 상호 연동하는 특징을 보여주며 2000년대 이후 섬유 및 의류 제품 중심이었던 교역품목과 투자업종이 점차 다양화되고 있고, ODA는 경제인프라를 중심으로 지원이 급증하고 있음.
- ▶ 향후 양국 경제협력은 기존 협력체제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보다 강화하고 방글라데시의 산업화를 통해 상생발전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이를 위해 개발협력, 통상 및 산업 협력, 지역협력을 보다 구체화해야 할 것임.
 - 개발협력은 방글라데시의 경제인프라 개발과 인력 육성에 우선집중하고, 프로그램(PBA) 형태의 협력을 통해 방글라데시의 중장기 개발을 지원해야 할 것임.
 - 양국은 방글라데시의 섬유 및 의류 산업 이외 ICT, 조선, 신재생에너지, 제약 부문 등에서의 협력을 우선 적극 추진하는 한편, 투자 및 산업 협력을 보다 강화한 FTA 추진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양국은 동북아시아와 남아시아에서 각각 지역협력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로, 특히 한국과 SAARC(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SASEC(South Asia Sub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차원의 협력을 적극 도모해야 할 것임.

1. 경제협력 환경의 변화

가. 방글라데시의 전략적 중요성

- [높은 성장잠재력] 방글라데시는 최근 5년간 연평균 6%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중장기적으로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음.
- 과거 농업에 의존했던 방글라데시는 오랫동안 빈곤국가로 인식되어왔지만 1990년대 이후 의류산업 주도의 수출활성화에 성공하면서 안정적인 성장궤도에 진입, 최근에는 베트남, 미얀마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해오고 있음.
- 방글라데시는 세계 3위의 의류수출국으로 2011/12년도¹⁾ 179억 달러의 의류를 수출하였으며, 이것은 방글라데시 전체 수출의 74%를 차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골드먼 삭스는 2005년 말 방글라데시를 세계경제를 이끌 11개 차세대 신흥국(Next-11)에 선정하였으며, 외국인투자자들도 풍부한 인적자원과 저렴한 인건비, 영어 사용, 적극적인 경제개발 및 개방 정책 등을 이유로 방글라데시를 신흥국 중에서도 성장잠재력이 큰 프런티어마켓(Frontier Market)²⁾으로 인식하고 있음.
- 방글라데시는 1억 6,670만 명(2012년 세계 8위)의 인구 중에 1억 명 이상의 청년층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인건비가 인도네시아, 중국, 인도 등에 비해 훨씬 낮고 경제특구 등 FDI 유치를 위한 특혜제도가 풍부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골드먼 삭스에 이어 도이치뱅크는 2012년 방글라데시를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와 함께 아시아 프런티어마켓 4개국으로 분류하고, 중장기적으로 6~8%의 경제성장률을 전망하였음.³⁾

그림 1. 방글라데시 및 주요 신흥국 성장률 추이



주: 2012년은 추정치.
자료: Global Insight, DataInsight(2013. 3. 12).

- 1) 방글라데시의 회계연도는 매년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까지임.
- 2) 이미 개발이 상당히 진행된 이머징마켓보다 경제규모는 작지만 발전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을 의미. S&P는 2000년부터 'S&P 프런티어마켓 지수'를 내놓고 있음(한국무역협회, 무역용어사전 요약).
- 3) Deutsche Bank(2012. 10. 18), "New Asia frontier markets."

- [최빈국 최대 협력파트너] 세계 48개 최빈개도국(LDC: Least Developed Countries) 중 방글라데시는 경제 및 인구 규모가 가장 큰 나라로 우리나라의 중점개발협력 파트너이자 최빈국 최대 교역 파트너임.
- 방글라데시는 앙골라와 함께 최빈국 중 GDP 규모 1,000억 달러가 넘는 나라이며 인구가 최빈국 전체 인구의 18%를 차지하고 있음.
 - 2012년 기준 방글라데시의 GDP 규모는 1,184억 달러이지만 2020년이면 2,000억 달러를 돌파하고 2026년경에는 3,000억 달러를 돌파할 전망이다(Global Insight).
- 또한 방글라데시는 최빈국 중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파트너로 2012년 양국간 교역규모는 17억 5,400만 달러를 기록, 미얀마보다 클 뿐만 아니라 2010년부터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중점지원국가로 선정되어 최빈국 중 부동의 원조 수혜국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

표 1. 한국과 주요 최빈국간 교역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국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GDP*	인구**
방글라데시	753	1,264	1,186	1,694	1,872	1,754	1,184	161
예멘	378	247	178	626	1,210	1,242	367	24
미얀마	373	360	485	639	965	1,682	544	54
캄보디아	290	309	292	376	538	719	142	15
잠비아	620	313	373	390	526	367	202	14
앙골라	516	1,267	443	272	221	555	1,214	18
수단	554	293	247	186	200	180	532	34
라오스	126	106	73	132	159	176	89	6
탄자니아	71	87	79	178	136	223	248	47
아프가니스탄	109	75	89	68	120	143	196	30

주: * 2012년 명목 기준 억 달러, ** 2012년 기준 백만 명.
 자료: UN Comtrade; IMF; CIA 등

나. 양국 관계의 심화

- [협력분야의 다양화] 1990년대 교역과 투자로 본격화된 양국 관계가 2000년대에는 개발협력과 인력 및 문화 교류로 확대되고 있음.
- 1980년대까지 저조했던 양국간 교역과 투자는 1990년대 이후 서서히 확대되었고 2000년 이후에는 대방글라데시 원조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으며 2007년부터는 양국간 협약에 따라 방글라데시 근로자들의 한국 내 고용이 시작되었음.
- 또한 양국 정부는 양국 국민들의 상호 이해와 우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문화 및 인적 교류를 더욱 확대해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양국 수교 40주년인 2013년을 '한 방글라데시 우정의 해'로 지정하였음.

- [고위급 협력 강화] 양국간 협력분야의 다양화와 함께 협력체제도 점차 고위급으로 격상되고 있음.
- 1980년대 이후 최근까지 1985년, 1995년, 2010년 세 차례에 걸쳐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으며, 양국 정부는 정상 회담을 통해 현안과제를 적극 개선해나가고 있음.
- 2010년 방한한 하시나(Hasina)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방글라데시에서의 한국수출가공공단 (KEPZ) 추진과 화력발전소 건설 지원에 합의하였으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력 제고를 위한 식량증산과 신재생에너지원 개발, 폐기물관리 및 강 복원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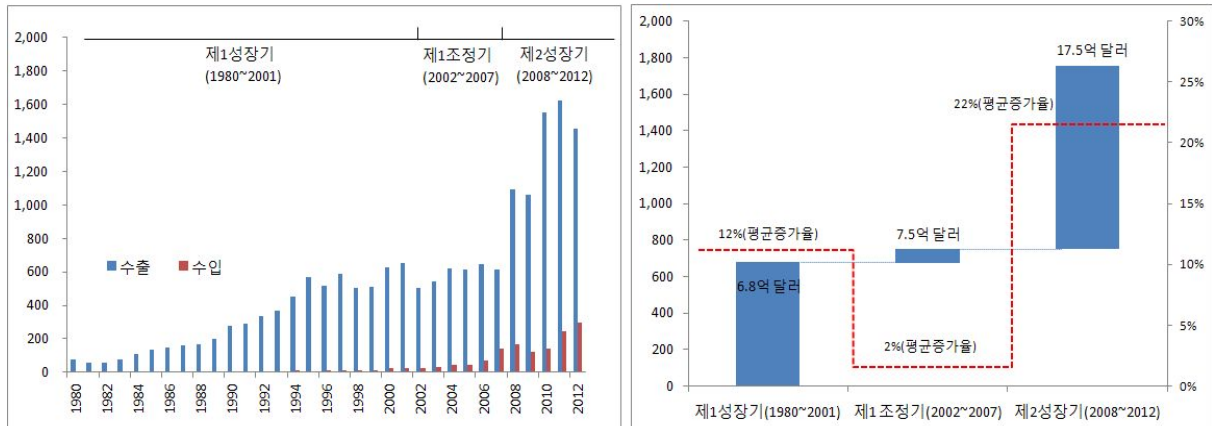
2. 부문별 경제협력 현황

가. 교역

- [교역규모 급증] 양국간 교역규모는 2012년 17억 5,000만 달러로 1980년 대비 23배, 1995년 대비 3배 증가함.
- 2012년 한국의 대방글라데시 수출과 수입은 각각 14억 5,000만 달러와 3억 달러로 1995년 대비 각각 2.6배와 35배 증가하였으며 한국이 매년 큰 폭의 무역수지 흑자를 누리고 있음(2012년 기준 한국의 전체 수출입에서 방글라데시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0.3%, 0.1%임).
- 특히 2008년 이후 한국의 수출이 수입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2007년 4억 7,000만 달러에서 2010년 14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함.
- [투자과 연동 발전] 양국 교역은 평균 교역증가율이 12%에 이르렀던 제1성장기(1980~2001년) 이후 평균 교역증가율이 2%로 낮아졌던 조정기(2002~07년)를 거쳐 2008년 이후 다시 평균 교역증가율이 22%까지 높아지는 제2성장기(2008년~)에 진입해 있음.
- 같은 기간 한국의 교역증가율은 10.8%, 16.8%, 7.5%로 조정기를 제외하고는 양국의 교역이 더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제2성장기의 성장률은 3배나 높음.
- ① 제1성장기(1980~2001년)
 - 한국의 섬유, 의류 업체들의 방글라데시 진출이 시작되면서 원사, 원단, 단추, 지퍼 등 원부자재 중심의 대방글라데시 교역이 꾸준히 증가
- ② 조정기(2002~07년)
 - 2000년까지 방글라데시 수출가공공단으로 한국의 섬유, 의류 업체들의 진출이 활발하였으나 이후 해외생산기지가 다변화됨에 따라 교역이 정체
- ③ 제2성장기(2008년~)
 - 방글라데시의 안정적 성장, 수입규제 완화, 내수확대,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석유화학, 철강 제품 등 중간재 중심으로 한국의 수출이 빠르게 증가

그림 2. 한국의 대방글라데시 교역량 및 발전단계

(단위: 백만 달러)



자료: CEIC; 무역협회, KOTIS.

■ [교역품목의 다양화] 양국간 주요 교역품목은 방글라데시의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과거 섬유제품 중심에서 석유제품, 철강제품, 기계류 등으로 빠르게 다양화되고 있음.

- 한국의 수출 상위 10대 품목 중 섬유 관련 제품 비중은 1994년 54.9%에서 2012년 23.2%로 감소한 반면, 2012년까지 석유제품(18.4%), 종이제품(7.7%), 시멘트(3.4%) 등의 비중이 증가함.
- 한국의 수입 상위 10대 품목은 1994년부터 2012년까지 큰 변화 없이 가죽, 석유제품 등의 수입비중이 높은 가운데 신발이 최근 상위 10대 품목에 진입하였으며, 의류 수입비중은 9.1%에서 42.4%로 대폭 높아짐.
- 1994년 이전까지 방글라데시에 진출한 의류업체와 신발제조업체는 각각 7개와 1개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각각 30개와 10개 업체가 진출하여 현지 진출업체들로부터 수입이 급증함.

표 2. 한국의 대방글라데시 10대 수출품목 변화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코드	10대 품목(2012년)	금액	비중	순위	코드	10대 품목(1994년)	금액	비중
총계			1,459	65.2	총계			452	70.0
1	133	석유제품	269	18.4	1	435	인조 단섬유직물	92	20.4
2	613	철강판	141	9.7	2	434	인조 장섬유직물	52	11.5
3	252	종이제품	112	7.7	3	721	섬유 및 화학 기계	29	6.4
4	619	기타 철강제품	107	7.3	4	439	기타 직물	28	6.2
5	214	합성수지	104	7.1	5	449	기타 섬유제품	23	5.1
6	626	아연제품	63	4.3	6	613	철강판	22	4.9
7	241	시멘트	50	3.4	7	433	면직물	20	4.4
8	721	섬유 및 화학 기계	37	2.5	8	411	인조섬유	18	4.0
9	622	동제품	37	2.5	9	214	합성수지	17	3.8
10	439	기타 직물	34	2.3	10	423	인조섬유방직사	15	3.3

주: MTI 3단위 기준.

자료: 무역협회, KOTIS.

표 3. 한국의 대방글라데시 10대 수입품목 변화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코드	10대 품목(2012년)	금액	비중
총계			295	97.7
1	441	의류	125	42.4
2	331	가죽	69	23.4
3	133	석유제품	54	18.3
4	512	신발	11	3.7
5	622	동제품	10	3.4
6	449	기타 섬유제품	10	3.4
7	19	기타 농산물	4	1.4
8	439	기타 직물	2	0.7
9	15	기호식품	2	0.7
10	421	천연섬유사	1	0.3

순위	코드	10대 품목(1994년)	금액	비중
총계			11	91.0
1	331	가죽	3	27.3
2	133	석유제품	2	18.2
3	439	기타 직물	1	9.1
4	449	기타 섬유제품	1	9.1
5	421	천연 섬유사	1	9.1
6	831	반도체	1	9.1
7	441	의류	1	9.1
8	542	취미오락기구	0	0.0
9	842	정전(static electric) 기기	0	0.0
10	226	농약 및 의약품	0	0.0

주: MTI 3단위 기준.
자료: 무역협회, KOT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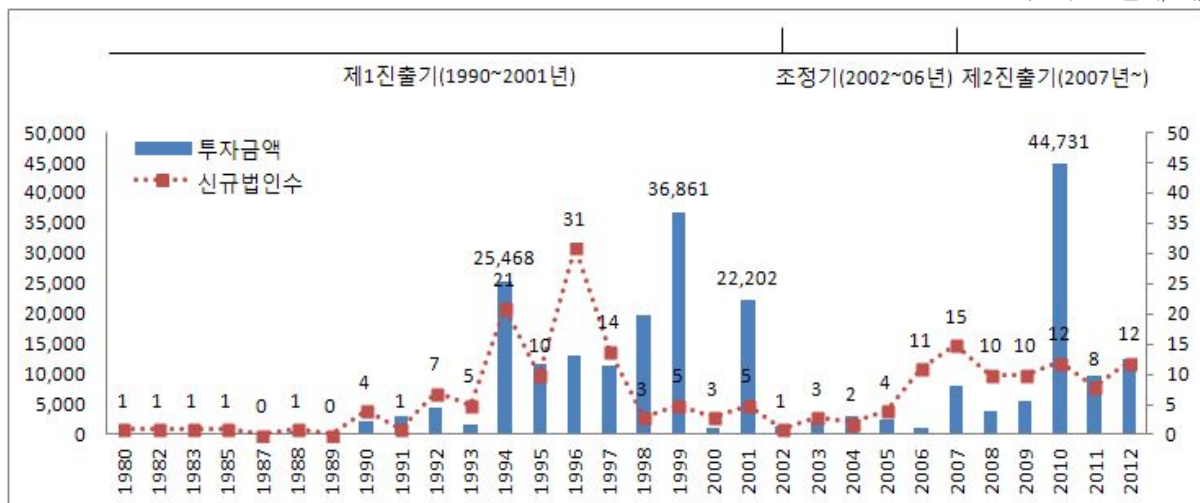
나. 투자

■ [투자규모 급증] 2012년까지 우리나라의 방글라데시 진출기업 수는 1990년 대비 22배, 누적 투자금액은 같은 기간 77배 증가함.

- 진출기업 수는 1990년 9개에서 2012년 202개로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누적 투자금액은 320만 달러에서 2억 5,000만 달러로 증가함.

그림 3. 한국의 대방글라데시 투자 추이

(단위: 천 달러, 개)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투자 통계.

■ [교역과 유사한 발전패턴] 한국의 대방글라데시 투자는 교역 발전단계와 유사한 제1진출기(1990~2001년)와 조정기(2002~06년)를 거쳐 현재 제2진출기(2007년~)를 맞이하고 있음.

① 제1진출기(1990~2001년)

- 방글라데시의 저렴한 인건비를 활용하여 의류 및 섬유 업체들이 공격적으로 진출하던 시기로 7년 사이 58개 업체가 진출하여 대방글라데시 투자를 주도

② 조정기(2002~06년)

- 방글라데시 진출이 급감한 시기로 같은 기간 진출기업 수가 14개로 줄어들었으며, 이는 의류 및 섬유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다변화하였기 때문임.

③ 제2진출기(200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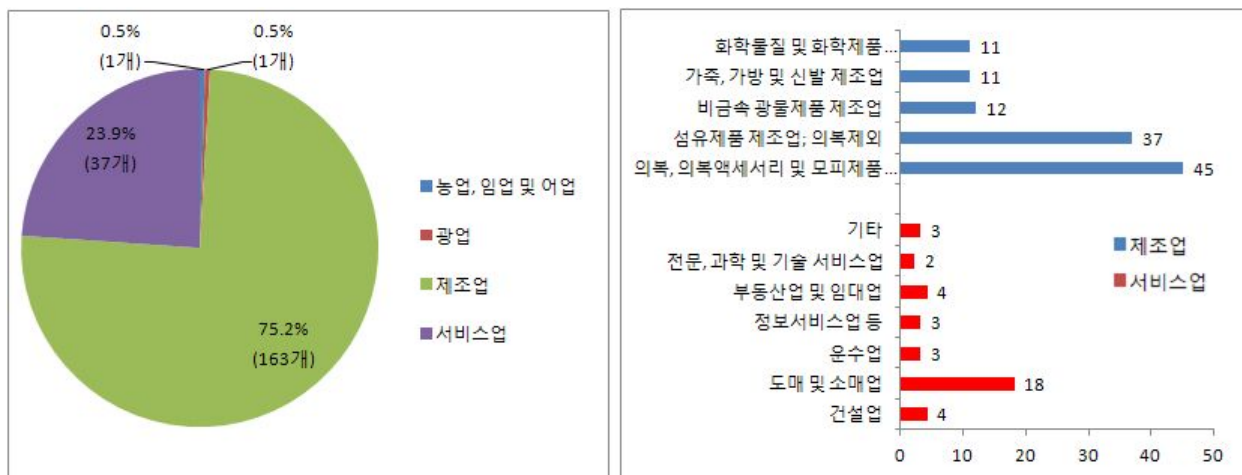
- 경쟁 생산기지의 인건비 상승 등으로 같은 기간 섬유 및 의류 기업만 22개가 추가 진출하였으며, 방글라데시 산업이 점차 고도화됨에 따라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 화학 관련 기업의 진출이 시작됨.

■ [제조업 중심 투자] 한국의 대방글라데시 투자는 섬유, 의류 업체를 중심으로 제조업 분야에 집중되어 있어 방글라데시의 산업화와 수출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2012년 누적 기준 제조업 분야 투자금액은 1억 8,000만 달러로 전체 투자의 약 7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밖에 광업이 17.6%, 서비스업이 9.5%를 차지함. 같은 기간 제조업 투자건수는 163개로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서비스업은 37개로 24%를 차지하고 있음.

그림 4. 한국의 대방글라데시 분야, 업종별 진출기업 수

(단위: %, 개)



주: 2012년 12월 말까지 누적 기준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투자통계.

■ [제조업 투자의 다양화] 한편 섬유 및 의류업의 투자비중이 감소하는 대신 제지, 기계, 화학, 자동차 분야의 투자비중이 늘어남.

- 1994~99년 섬유, 의류, 가죽 분야의 투자금액 비중은 85%에 이르렀으나 2010~12년에는 79%로 감소하였으며,

대신 펄프 등 제지업(9.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4.3%), 의료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분야 등의 투자비중이 증가하였음.

- 2012년 기준 제조업별 투자건수 비중도 의류 및 섬유업(82개)은 50%로 줄어들었음.

표 5. 한국의 대방글라데시 제조업 분야별 투자

(단위: 천 달러, %)

제조업 분류(2010~12년)	금액	비중	제조업 분류(1994~99년)	금액	비중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6,760	4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57,434	53.3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4,615	28.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27,728	25.7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1,622	9.9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6,600	6.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565	9.6	기타 제품 제조업	6,314	5.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700	4.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964	3.7
기타 제품 제조업	551	3.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2,423	2.2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186	1.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120	2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37	0.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32	0.3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34	0.8	1차 금속 제조업	295	0.3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0	0.3	기타	599	0.6
총	16,319	100	총	107,843	100

주: 기타는 식료품, 가구, 목재 및 나무제품, 금속가공제품 등의 합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투자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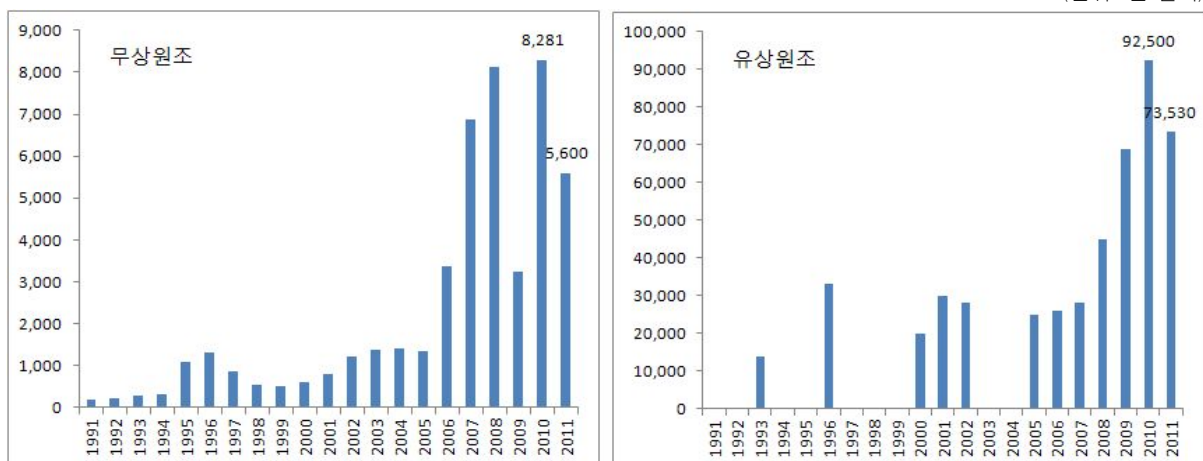
다. ODA

- [유상원조 급증] 1993년부터 2011년까지 우리나라의 대방글라데시 원조규모는 총 5억 3,100만 달러로, 특히 2008년 이후 유상원조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대방글라데시 원조는 2004년까지 무상원조가 대부분이었으나 이후 유상원조의 비중이 증가하여 2011년 말 기준 유무상원조 비중은 각각 91%(4억 8,300만 달러)와 9%(4,760만 달러)임.

그림 5. 한국의 대방글라데시 무상, 유상 원조 추이

(단위: 천 달러)



자료: ODA Korea.

- [최대 수혜국으로 부상] 2000년대 후반 우리나라의 원조금액이 증가하면서 방글라데시는 개도국 중 2위, 최빈국 중 1위의 원조대상국가로 부상함.

- 개도국 전체에서 대방글라데시 원조규모는 베트남 다음으로 가장 많으며, 최빈국 중에서는 가장 많음.

표 6. 한국의 10대 ODA 수원국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국가명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5년 합계	5년 평균
1	베트남	309	241	307	293	206	1,355	271
2	방글라데시*	45	143	77	100	90	455	91
3	인도네시아	24	80	108	158	23	393	79
4	필리핀	14	54	205	65	48	386	77
5	캄보디아*	19	70	40	76	78	283	57
6	스리랑카	2	147	46	43	39	278	56
7	몽골	29	20	16	51	84	200	40
8	라오스*	75	11	55	17	38	197	39
9	앙골라*	49	0	3	98	0	151	30
10	아프가니스탄*	5	20	7	87	3	122	24

주: 약정액 기준, * 최빈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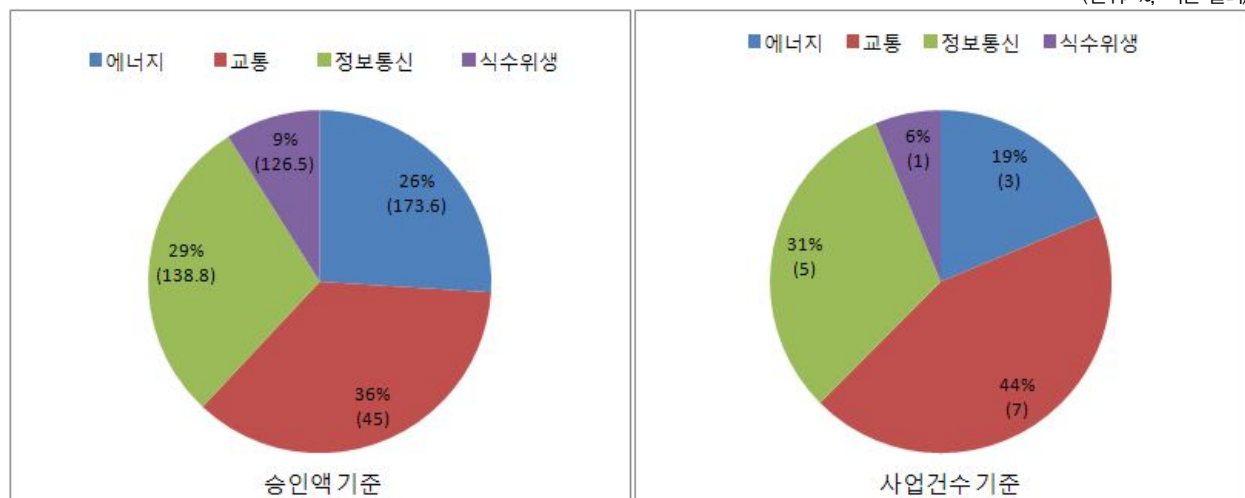
자료: OECD Creditor Reporting System(<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2013. 3. 14).

- [경제인프라 개발에 집중] 유무상원조 모두 방글라데시의 경제인프라 개발에 집중지원되고 있음.

- 특히 유상원조는 지원금액 기준으로 교통(36%), 정보통신(29%), 에너지(26%) 부문 개발에 집중되어 있으며, 무상원조의 인프라 부문 지원금액 비중도 35% 이상임.

그림 6. 대방글라데시 유상지원 부문별 배분(1993~2011년 누계)

(단위: %, 백만 달러)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3. 경제협력 방향과 과제

가. 경제협력 방향

-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방글라데시는 한국을 발전모델로, 한국은 방글라데시를 최빈국과의 상생(win·win) 협력의 대표적인 모델로 삼고 협력을 보다 강화해나가야 할 것임.
- 1960~70년대 한국은 현재의 방글라데시와 같은 농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며, 만성적인 재정 및 무역수지 적자, 높은 대외원조 의존도, 외채 누적 등 당시 여건이 현재 방글라데시의 경제상황과 비슷함.
- 또한 방글라데시는 천연가스를 생산하고 있지만 생산과 매장량이 충분하지 않는 등 한국과 같이 천연자원이 대체로 빈곤하고, 특히 에너지 자원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반면 인적 자원은 상대적으로 풍부함.
- 방글라데시가 중국, 인도, ASEAN과 같은 고성장국가들과 이웃하고 있고 다른 남아시아 국가들과 달리 단일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도 한국과 비슷함.
- [방글라데시의 산업화를 통한 상생발전] 향후 양국 경제협력은 방글라데시의 산업화를 통하여 양국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모아져야 할 것임.
- 의류 및 섬유업 등을 중심으로 한 수출확대, 인프라 확충을 통한 산업화 여건 조성, 조선업 등 중화학공업 육성 추진 등 방글라데시의 산업구조 고도화 과정이 한국의 발전과정과 유사하여 상호협력의 시너지가 클 것임.

표 7. 방글라데시와 한국의 경제개발전략 비교

계 획 (기간)	방글라데시		한 국	
	Vision 2021 (2009~21년)	제6차 경제개발 5개년 (2011~15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1962~66년)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1976~71년)
목표성장률	10%	8%	7.1%(8.5%로 초과 달성)	7.0%(9.7%로 초과 달성)
개발 전략 및 목표	저축 및 투자 확대	인적자원 개발	농업생산력 증대	식량자급, 수자원 개발
	고용증대	인구증가 억제	에너지 공급원 확보	공업 고도화 및 생산 증대
	공업 중심의 성장	공업화와 무역확대	기간산업 및 SOC 확충	국제수지 개선
	시장개방 및 수출입 확대	전력 및 연료 확보	유흥자원 활용	수출 확대(7억 달러 목표)
	국제수지 개선	식량안보	국제수지 개선	인구증가 억제
	수자원 개발	SOC 및 ICT 개발	기술 진흥	인적자원 개발

자료 : 방글라데시와 한국의 중장기 개발계획 등을 참고하여 작성.

나. 경제협력 과제

- [개발협력 강화] 양국 정부는 개발협력을 우선 적극 활용하여 방글라데시의 산업화는 물론 양국간 교역과 투자를 촉진하여 양국의 지속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임.
- 양국은 집중협력분야를 방글라데시의 경제인프라와 인력 개발에 두고, 개발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방글라데시의 중장기 개발계획에 원조를 포함시키는 프로그램 형태(PBA: Program Based Approach)의 협력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임.
- 특히 한국정부는 방글라데시의 주인의식(ownership)을 보다 존중하고 원조의 분절화에 따른 비효율을 최소화하고 국제기관 및 다른 공여국과의 원조 조화에도 보다 적극 대응해야 할 것임.
- [통상 및 산업 협력 강화] 방글라데시의 산업화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양국 민간기업에 의한 자발적인 교역과 투자이지만 이를 촉진시키기 위한 양국 정부의 통상협력, 산업협력 노력 또한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임.
- 양국은 최빈국에 대한 관세특혜,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차원의 통상협력체제를 가동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투자 및 산업 협력을 보다 강화한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또한 양국 정부는 양국의 교역과 투자가 연동되어 발전하는 특징을 감안하여 방글라데시의 중점육성 및 유망 산업을 중심으로 대방글라데시 투자를 촉진하는 정책 개발 및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임.

표 8. 섬유 및 의류 산업 이외 방글라데시의 주요 유망산업

ICT	- 세계 30대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⁴⁾ 후보지(가트너, 2010년 선정) - Digital Bangladesh 등 방글라데시 정부의 중점육성산업
조선	- 강이 많은 지형적 특성으로 해상교통수단으로서 수요가 많고 중소형 선박 건조 및 수출 경험 축적 - 방글라데시 정부는 의류산업을 잇는 제2의 수출산업으로 육성할 계획
신재생에너지	- 2012년 기준 1인당 전력소비량이 136kwh로 세계 최저 수준 - 2020년까지 전체 전력 생산의 1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할 계획
의료기기 및 제약	- 인도보다도 저렴한 의약품 제조비용과 방대한 내수시장 존재 - 연간 약 4,000만 달러의 의약품 수출 경험 축적

자료 : 방글라데시 투자청 및 각종 언론자료 등을 참고하여 작성.

- [지역협력 강화] 양국은 동북아시아와 남아시아에서 각각 지역협력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로서 양 지역간 협력 강화를 주도해나가야 할 것임.

4) 회사업무처리의 전 과정을 외부업체에 맡기는 아웃소싱방식으로 구매, 인사, 제품개발 등의 업무를 외부업체가 수행하는 것을 의미함.

- 양국은 중장기적으로 한국과 ASEAN 수준의 지역협력을 비전으로 삼고 양자간 긴밀한 협력체제를 바탕으로 한국과 SAARC(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간 협력을 적극 도모해나가야 할 것임.
- 또한 ASEAN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GMS(Greater Mekong Subregion)와 유사한 SASEC(South Asia Sub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차원의 양자간 협력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표 9. 방글라데시가 참여하고 있는 주요 지역협력체

OIC(Organisation of Islamic Cooperation)	- 이슬람 국가들의 연대와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1969년 설립, 57개국 가입 - 방글라데시 1977년 가입
APTA(Asia Pacific Trade Agreement)	- 구 방콕협정으로 회원국간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제거로 무역확대가 목적 - 방글라데시, 한국, 인도, 중국 등 8개국 가입
SAARC(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 남아시아 국가간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1986년 방글라데시가 주도하여 설립 - 2006년 역내 FTA인 SAFTA 발효, 2016 관세동맹인 SACU로 발전 계획
BIMSTEC(Bay of Bengal Initiative for Multi-Sectoral Technical and Economic Cooperation)	- 벵골만 국가들간의 지역협력체로 1997년 발족 - 스리랑카, 인도, 네팔, 부탄, 방글라데시, 미얀마, 태국 등 7개국 가입
D-8(Developing 8 Countries)	- 이슬람 국가간 경제협력기구를 1997년 창립 -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터키, 인도네시아, 이란,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8개국 가입
SASEC(South Asia Sub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 남아시아 4개국 소지역 경제협력체로 2001년 ADB 지원으로 설립 - 2013년부터 도로, 철도 등 연결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

자료: 각종 언론자료 등을 참고하여 작성. KIEP